BNK 경제인사이트

ISSN 2384-3519

BNK 금융경영연구소
NO. 2016-03 (2016년 3월)

10대 신흥국(중국제외)에 대한 동남권지역 수출 분석

백충기 수석연구위원 (cgbaek@bnkfg.com)
김민준 책임연구원 (kmj9612@bnkfg.com)

최근 10년간 동남권지역의 10대 신흥국에 대한 수출은 미국, 중국 및 유로 등으로의 수출보다 빠르게 늘어났다. 그 결과 2011년 이후 이들 신흥국은 동남권지역 수출중 15% 내외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시장이 되었다.

이와같은 수출증가는 신흥국의 수입규모가 늘어나고 동남권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된 것이 주요 요인이다. 그러나 동남권지역의 주력 수출상품은 대부분 이들 국가의 전체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진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인프라 투자수요 및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로 인해 신흥국 수출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다만 신흥국 상당수가 원자재 수출국임을 감안할 때 지난 1년반 동안 크게 하락한 원자재가격의 반등여부가 신흥국에 대한 동남권지역 수출회복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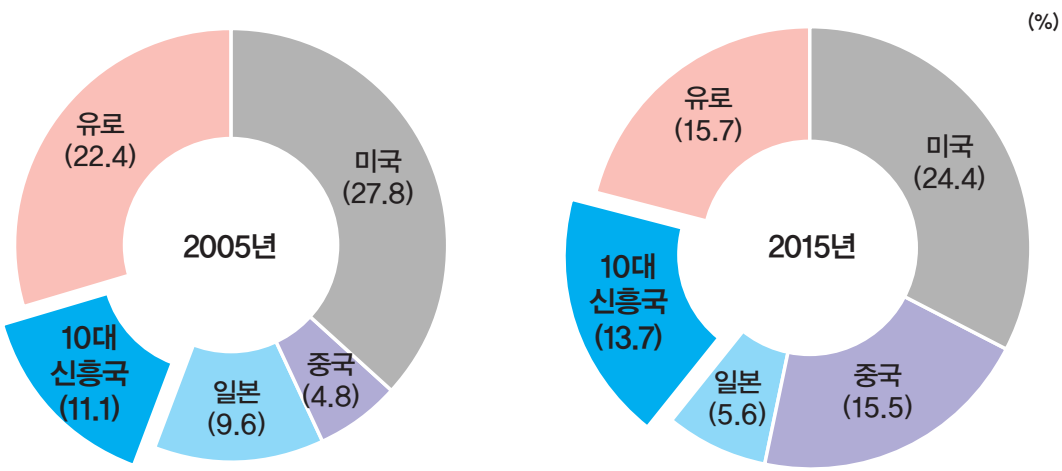
10대 신흥국(중국제외), 2011년이후 동남권지역 최대 수출지역으로 부상

최근 10년간(2006~15년) 신흥국경제는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중국의 명목GDP는 세계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4.8%에서 2015년 15.5%로 3배 늘어났다. 중국을 제외한 151개 신흥국(신흥국분류는 IMF 기준) GDP 비중도 동기간 18.9%에서 23.7%로 크게 상승하였다.

본고에서는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중 명목GDP기준 상위 10개국에 대한 동남권지역 수출현황 및 수출증가요인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0대 신흥국은 2006~15년중 신흥국GDP 상위 10개국에 매년 포함된 9개국(인도 · 브라질 · 러시아 · 멕시코 · 인도네시아 · 터키 · 사우디아라비아 · 아르헨티나 · 폴란드)과 이들을 제외하고 10개국에 가장 많이 포함된 이란이다.

10대 신흥국 명목GDP는 2005년 5조2천억달러에서 2015년 10조달러로 증가하였다. 세계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11.1%에서 2015년 13.7%로 늘어났으며 2015년 기준으로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GDP중 10대 신흥국은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국 명목GDP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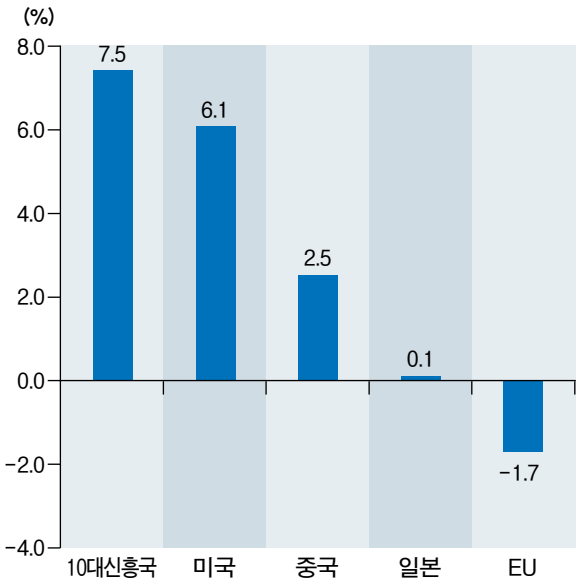


주 : (　　)내는 전세계 GDP대비 비중
자료 : IMF

2006~15년중 동남권지역의 10대 신흥국에 대한 수출은 연평균 증가율이 7.5%에 달할 정도로 급속히 늘어났다. 이는 미국(6.1%), 중국(2.5%), 일본(0.1%) 및 유로지역(-1.7%)에 대한 수출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다만 2012년 이후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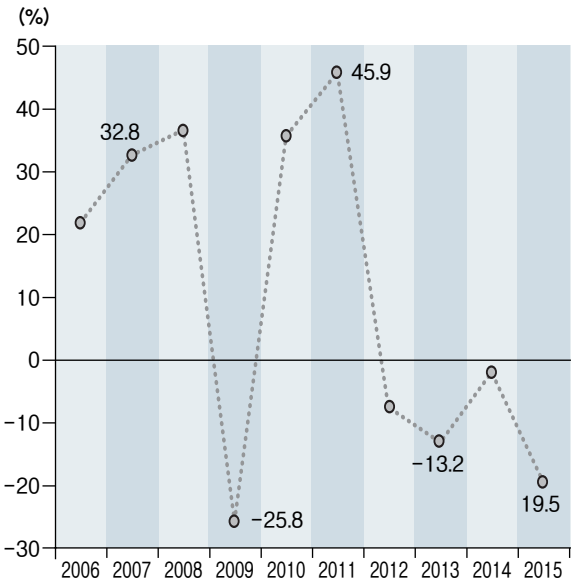
그 결과 동남권지역의 10대 신흥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2005년 11.7%에서 2011년 이후 15% 내외로 확대되면서 10대 신흥국은 4위 수출시장에서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다. 2015년에는 수출비중이 13.9%로 미국(14.3%)보다 소폭 낮아졌으나 여전히 중국(11.3%)을 능가하고 유로지역(7.0%) 및 일본(5.0%)의 2~3배에 달하는 주력 수출시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권의 지역별 수출증가율



주 : 2006~15년중 연평균 증가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

동남권의 10대신흥국 수출증가율



주 :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

10대 신흥국(중국제외) 순위

순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	브라질	브라질	브라질	브라질	브라질	브라질	브라질	브라질	브라질	인도
2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인도	인도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인도	브라질
3	멕시코	인도	인도	러시아	러시아	인도	인도	인도	러시아	러시아
4	인도	멕시코	멕시코	멕시코	멕시코	멕시코	멕시코	멕시코	멕시코	멕시코
5	터키	터키	터키	터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6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터키	터키	터키	터키	터키	터키
7	사우디 아라비아	폴란드	폴란드	폴란드	사우디 아라비아	사우디 아라비아	사우디 아라비아	사우디 아라비아	사우디 아라비아	사우디 아라비아
8	폴란드	사우디 아라비아	사우디 아라비아	사우디 아라비아	폴란드	이란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
9	남아프리카	이란	아르헨티나	이란	이란	아르헨티나	이란	폴란드	폴란드	나이지리아
10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이란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폴란드	폴란드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	폴란드

주 : 명목GDP 기준
자료 : IMF

품목별로는 기계 · 기계부품, 자동차 · 자동차부품 수출 증가세 높아

2005년과 2015년 동남권지역의 신흥시장국에 대한 수출품목 구성은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상위 10대 품목중 자동차 · 자동차부품, 기계 · 기계부품, 석유제품 · 석유화학제품, 전기기기, 철강제품, 플라스틱, 선박, 유기화학품, 철강 등 9개 품목은 2015년에도 10대 품목에 포함되었다. 다만 2015년에는 고무제품 대신 열차 · 철도부품이 10대 품목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 상위 10대 수출품목의 비중은 동남권지역의 10대 신흥국에 대한 전체수출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2006~15년중 품목별 수출증가율은 기계 · 기계부품(연평균 10.8%) 및 자동차 · 자동차부품(9.1%)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두 품목의 비중은 2015년 10대 신흥국에 대한 동남권지역 수출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46.1%에 달하고 있다.

동남권지역의 신흥국 품목[1]별 수출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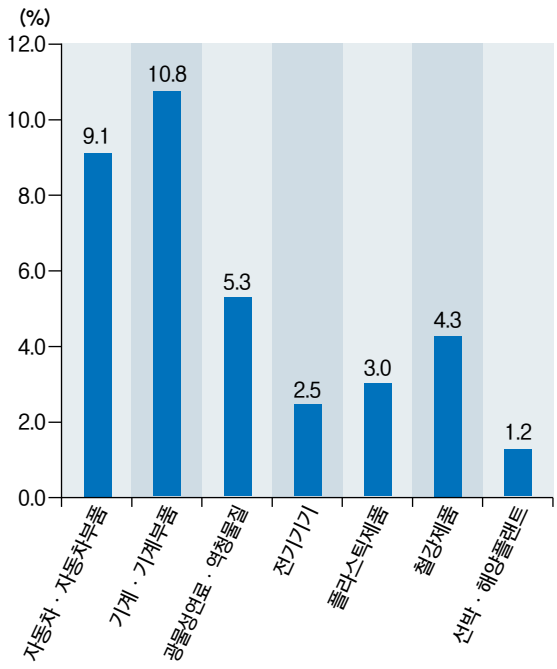
(%)

순위	2005년		2015년	
	품 목	비중[2]	품 목	비중[2]
1	자동차 · 자동차부품	22.8	자동차 · 자동차부품	26.6
2	석유제품 · 석유화학제품	14.5	기계 · 기계부품	19.5
3	기계 · 기계부품	14.3	석유제품 · 석유화학제품	11.8
4	전기기기	12.5	전기기기	7.7
5	플라스틱제품	8.2	플라스틱제품	5.4
6	선박 · 해양플랜트	6.4	철강제품	4.2
7	철강제품	5.7	유기화학품	3.6
8	유기화학품	2.1	선박 · 해양플랜트	3.5
9	철강	1.8	철강	2.5
10	고무제품	1.7	열차 · 철도부품	2.2

주 : 1) 품목은 HS 2단위 기준
2) 10대 신흥국 수출중 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

동남권지역의 신흥국 품목[1]별 수출증가율[2]



주 : 1) 품목은 HS 2단위 기준
2) 2006~15년중 연평균 증가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에 대한 수출이 가장 빠르게 증가

2015년 기준으로 10대 신흥국중 동남권지역의 최대 수출국은 사우디아라비아로 나타났으며 2~10위는 인도 · 인도네시아 · 멕시코 · 터키 · 브라질 · 러시아 · 이란 · 폴란드 · 아르헨티나 순이었다. 2005년보다 순위가 상승한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 멕시코 · 브라질 · 폴란드이다. 특히 인도는 2005년 최대 수출대상국에서 2015년 2위로 밀려났다.

2006~15년중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수출은 연평균 20.1% 증가하면서 10대 신흥국중 가장 높은 신장세를 기록했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최대수출품인 자동차 · 자동차부품 수출이 크게 증가한데 주로 기인한 것이다. 또한 멕시코, 브라질, 폴란드도 12~15%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다만 동남권지역의 러시아에 대한 수출은 2005년 2대 수출품이었던 선박 · 해양플랜트가 급감하면서 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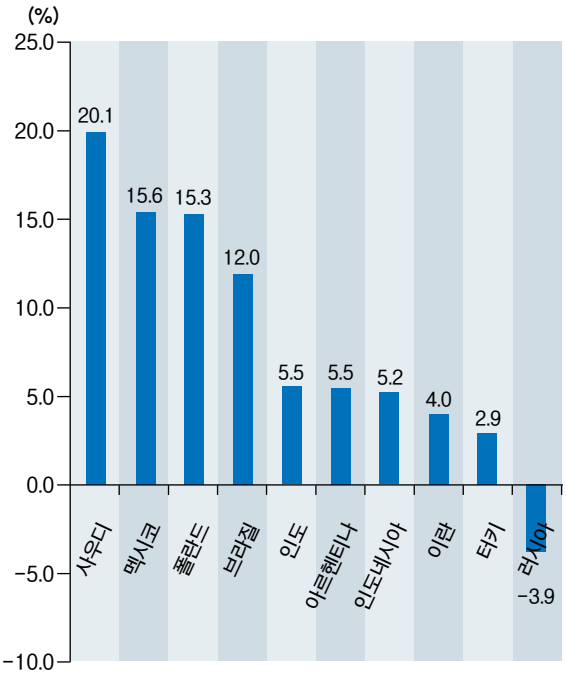
동남권지역의 신흥국가별 수출 순위

(%)

구분	2005년		2015년	
	국가명	비중[1]	국가명	비중[1]
1위	인도	21.1	사우디아라비아	24.7
2위	인도네시아	20.4	인도	17.6
3위	러시아	20.2	인도네시아	16.5
4위	터키	11.1	멕시코	13.7
5위	사우디아라비아	8.1	터키	7.2
6위	멕시코	6.6	브라질	6.7
7위	이란	6.2	러시아	6.6
8위	브라질	4.4	이란	4.5
9위	아르헨티나	1.1	폴란드	1.7
10위	폴란드	0.8	아르헨티나	0.9

주 : 1) 10대 신흥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

동남권지역의 신흥국가별 수출증가율



주 : 2006~15년중 연평균 증가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

10대 신흥국 수출 상위품목의 국가별 수출 현황

▣ (1위 수출품) 자동차 · 자동차부품

■ 최대 수출대상국
· 2005년 : 러시아(비중* 29.2%) → 2015년 : 사우디아라비아(비중 40.5%)

* 10대신흥국 전체수출중 비중

■ 2006~15년중 연평균 수출증가율 상위국
· 브라질(36.0%), 사우디아라비아(24.0%), 인도(17.0%)

▣ (2위 수출품) 기계 · 기계부품

■ 최대 수출대상국
· 2005년 : 이란(비중 16.1%) → 2015년 : 사우디아라비아(비중 24.3%)

■ 2006~15년중 연평균 수출증가율 상위국
· 멕시코(18.5%), 사우디아라비아(17.1%), 브라질(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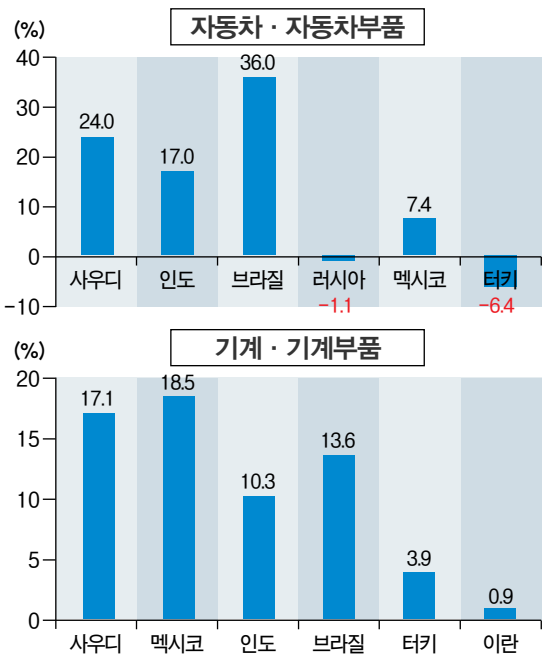
동남권의 신흥국 품목별/국가별 수출 순위

(%)

구분	자동차 · 자동차부품		기계 · 기계부품	
	2005년	2015년	2005년	2015년
1위	러시아 (29.2)	사우디 (40.5)	이란 (16.1)	사우디 (24.3)
2위	터키 (26.7)	인도 (14.5)	인도 (15.4)	멕시코 (24.1)
3위	인도 (17.0)	브라질 (11.5)	터키 (14.2)	인도 (14.7)
4위	사우디 (11.3)	러시아 (10.9)	사우디 (14.0)	브라질 (8.0)
5위	멕시코 (7.4)	멕시코 (9.5)	멕시코 (12.3)	터키 (7.4)

주 : ( )내는 10대신흥국 수출액중 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

동남권의 신흥국 품목별/국가별 수출증가율



주 : 2005~16년중 연평균 증가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

동남권 주력 수출상품, 신흥국에서 경쟁력 유지
신흥국 수입비중은 높으나 동남권 수출실적이 저조한 품목에 관심을 두어야

동남권지역의 신흥국에 대한 수출증가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CMS(constant market share, 불변시장점유율) 기법을 활용하였다. CMS분석을 통해 동남권지역의 신흥국에 대한 수출이 "동남권지역 수출제품의 신흥국시장 점유율 변화", "신흥국의 수입구조 변화", "신흥국의 수입규모 변화" 등 3가지 변수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분석할 수 있다. 즉 동남권지역의 신흥국 수출에 있어 이들 3가지 변수가 수출확대요인(+)으로 작용하는지 또는 수출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동남권지역의 신흥국에 대한 수출상위 10대 품목을 기준으로 2005년 대비 2014년 증가요인을 변수별로 분석한 결과 "신흥국의 수입규모 변화" 및 "동남권지역 수출제품의 신흥국시장 점유율 변화"는 수출증가(+)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10대 신흥국에 대한 동남권지역 수출증가는 신흥국 수입규모가 늘어나고 동남권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한다는 것이다. 10대 주력품목중 석유제품 · 석유화학제품, 기계 · 기계부품, 선박 · 해양플랜트, 유기화학품, 귀금속 · 보석류 등 상당수의 주요 수출제품은 점유율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신흥국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자동차 · 자동차부품, 플라스틱 제품, 전기기기, 철강제품의 점유율 하락은 동남권업체의 해외 현지생산이 늘어나고 중국의 저가제품 공급이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신흥국의 수입구조 변화"는 수출제약(−)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동남권지역의 주력 수출상품은 수입국의 수입품목별 비중이 낮아진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남권지역의 10대 수출품목중에서는 8개가 신흥국의 전체수입에서 비중이 낮아졌다.

CMS 분석결과[1)2)]

품 목[3)]		수출증감	시장점유율	수입구조 변화	수입규모
전 체[4)]		(+)	(+)	(−)	(+)
1	석유제품 · 석유화학제품	(+)	(+)	(+)	(+)
2	자동차 · 자동차부품	(+)	(−)	(−)	(+)
3	기계 · 기계부품	(+)	(+)	(−)	(+)
4	선박 · 해양플랜트	(+)	(+)	(−)	(+)
5	플라스틱제품	(+)	(−)	(−)	(+)
6	유기화학품	(+)	(+)	(−)	(+)
7	전기기기	(−)	(−)	(−)	(+)
8	철강제품	(+)	(−)	(−)	(+)
9	철강	(+)	(+)	(−)	(+)
10	귀금속 · 보석류	(+)	(+)	(+)	(+)

주 : 1) 2005년대비 2014년(사우디아라비아, 이란은 품목별 수입데이터 한계로 분석 제외)
2) (+)는 동남권의 대신흥국 수출확대요인, (−)는 수출제약요인
3) 품목은 HS 2단위 기준
4) 수출상위 10대 품목 기준

자료 : UN Comtrade, 한국무역협회

CMS (Constant Market Share, 불변시장점유율) 분석

CMS분석방법은 특정제품의 수출증감요인을 3가지 요인(점유율변화, 수입구조변화, 총수입규모변화)으로 나누어 수출기여도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특히 여타 요소의 변화는 통제(동일조건)한 상태에서 특정요인이 수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데 용이하다. 요인별 영향을 부호(+ : 수출증가요인 / - : 수출감소요인)로 결과값을 제시하고 의미를 분석하였다.

(참고 : 한국은행)

▣ [산출식] 동남권의 10대 신흥국 수출증감액

$$
\begin{aligned}
&\sum (X_{j,t_1} - X_{j,t_0}) \\
&= \sum (M_{j,t_1}\theta_{j,t_1} - M_{j,t_0}\theta_{j,t_0}) \\
&= \sum M_{j,t_1}(\theta_{j,t_1} - \theta_{j,t_0}) + \sum \theta_{j,t_0}(M_{j,t_1} - M_{j,t_0}) \\
&= \sum M_{j,t_1}(\theta_{j,t_1} - \theta_{j,t_0}) + \sum \theta_{j,t_0}(M_{t_1}\alpha_{j,t_1} - M_{t_0}\alpha_{j,t_0}) \qquad [\because M_{j,t_i} = M_{t_i}\alpha_{j,t_i}] \\
&= \sum M_{j,t_1}(\theta_{j,t_1} - \theta_{j,t_0}) + \sum \theta_{j,t_0}[M_{t_1}(\alpha_{j,t_1} - \alpha_{j,t_0}) + \alpha_{j,t_0}(M_{t_1} - M_{t_0})] \\
&= \sum M_{j,t_1}(\theta_{j,t_1} - \theta_{j,t_0}) + \sum \theta_{j,t_0} M_{t_1}(\alpha_{j,t_1} - \alpha_{j,t_0}) + \sum \theta_{j,t_0}\alpha_{j,t_0}(M_{t_1} - M_{t_0})
\end{aligned}
$$

① 신흥국내 동남권 제품 점유율 변화 ② 신흥국의 수입구조 변화 ③ 신흥국의 수입규모 변화

X_{j,t_0} : t_0기 동남권의 j품목 해당국 수출액
M_{t_0} : t_0기 해당국의 총 수입액
α_j : 신흥국의 총수입중 j품목의 비중
M_{j,t_0} : t_0기 신흥국의 j품목 수입액
θ_j : 동남권의 j품목 신흥국 수입시장 점유율

한편 신흥국의 상위 10대 수입품목은 2005년과 2014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기준 신흥국의 상위 10대 수입품은 석유제품 · 석유화학제품, 기계 · 기계부품, 전기기기, 자동차 · 자동차부품, 플라스틱 제품, 귀금속 · 보석류, 철강, 유기화학품, 광학 · 사진 · 정밀기기, 의료용품 등이었다. 2005년 10대 수입품목에 포함되었던 철강제품을 대신해 의료용품이 순위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학 · 사진 · 정밀기기, 의료용품은 10대 신흥국에서는 2014년 기준으로 수입비중이 각각 9위와 10위에 해당하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동남권지역의 대신흥국 수출품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0.34%(23위 수출제품), 0.01%(57위 수출제품)에 불과했다. 신흥국의 비중 및 수입 증가세를 고려할 때 이들품목의 수출확대 가능성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흥국의 주요 수입품목 순위[1)2)3)]

순위	신흥국의 수입품목 순위		동남권지역의 신흥국 수출품목(2014년)
	2005년	2014년	
1	석유제품 · 석유화학제품	석유제품 · 석유화학제품	석유제품 · 석유화학제품
2	기계 · 기계부품	기계 · 기계부품	자동차 · 자동차부품
3	전기기기	전기기기	기계 · 기계부품
4	자동차 · 자동차부품	자동차 · 자동차부품	선박 · 해양플랜트
5	플라스틱 제품	플라스틱 제품	플라스틱 제품
6	철강	귀금속 · 보석류	유기화학품
7	귀금속 · 보석류	철강	전기기기
8	유기화학품	유기화학품	철강제품
9	광학 · 사진 · 정밀기기	광학 · 사진 · 정밀기기	철강
10	철강제품	의료용품	귀금속 · 보석류

주 : 1) 품목은 HS 2단위 기준
2) 2014년 수입액 및 수출액 기준
3)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은 데이터 한계로 제외

자료 : 한국무역협회, UN Comtrade

동남권 수출은 신흥국의 공장설비 및 인프라 투자와 상관관계 높아

동남권지역의 신흥국에 대한 수출과 10대 신흥국의 거시지표(소비, 투자, 수출)간 상관관계(correlation analysis) 분석을 통해 신흥국 지출이 동남권지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2005년 1분기~2015년 4분기중 각 지표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10대 신흥국에 대한 동남권지역 수출은 10대 신흥국의 고정투자, 즉 공장설비 및 인프라 투자 등과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투자와 동남권지역의 신흥국에 대한 수출 상관관계는 인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관계수가 0.40를 초과하였으며 특히 이란의 경우에는 0.7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동남권지역 대신흥국수출과 신흥국 거시지표간 상관관계[1)2)]

구 분	민간소비	고정투자	수출
인 도	−0.06	−0.09	0.35
인도네시아	0.00	**0.55**	**0.67**
멕시코	**0.45**	**0.59**	0.23
터 키	0.35	**0.44**	0.27
브라질	**0.58**	**0.55**	**0.42**
러시아	**0.62**	**0.68**	0.27
이 란	0.36	**0.77**	−0.12
폴란드	**0.55**	**0.48**	**0.52**
아르헨티나	**0.54**	**0.69**	**0.54**

주 : 1) 2005.1분기 ~ 2015.4분기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기준
(단, 인도네시아 2008.1분기, 인도 및 이란은 2012.2분기 이후 기준)
2) 진한 표시는 상관계수 0.4 초과

자료 : Bloomberg

10대 신흥국, 2012년 이후 수출 감소세
신흥국의 높은 투자수요 및 이란 효과로 개선 기대되나
원자재 가격변동이 관건

동남권의 10대 신흥국에 대한 수출은 2012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앞선 분석을 고려할 때 신흥국의 높은 인프라 투자수요 및 이란 경제제재 해제는 동남권지역의 신흥국에 대한 수출확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은행(2015.8월)에 따르면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의 인프라 구축수준은 지난 10년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시아 신흥국의 경우 전력은 선진국의 20%, 도로밀도는 45%, 철도밀도는 16%에 불과하여 공적재원의 한계를 고려할 때 민간부분의 투자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은 최근 대규모 인프라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Financial Times (2016.3.9일), Nikkei Asian Review (2015.1.15일) 등에 따르면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이 경제발전 속도가 낮은 원인을 인프라 부족에 있다고 보고 2015년 발표한 철도, 발전소, 통신, 교통, 항만 등 4,36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계획을 향후 더욱 확대하여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신흥국 인프라 투자계획

구 분	투 자 계 획
인 도	• 35조원의 NEF(National Investment and Infrastructure Fund) 설립(2015년) • 고속철도, 도로, 전력 등
인도네시아	• 470조원의 인프라 투자계획 발표(2015-2020년) • 철도, 발전소, 항만 등
브라질	• 72조원의 물류 투자프로그램 발표(2015년) • 철도, 도로, 항만, 공항 등
멕시코	• 660조원의 국가 인프라 프로그램(2014-2018년) • 에너지, 도시계획, 통신, 교통 등
폴란드	• 70조원의 州정부, 인프라 · 환경 운용프로그램(2014-2020년) • 에너지, 환경, 교통인프라 등

자료 : FT, 국제금융센터, KOTRA

이란 경제제재 해제도 동남권지역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이란은 경제제재 이전 동남권지역의 기계 · 기계부품 최대수출국이었음을 고려할 때 수출증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2005년중 이란은 동남권의 10대 신흥국에 대한 기계 · 기계부품 수출의 16.1%의 비중을 차지하는 최대수출국이었으나 2015년에는 6.3%로 크게 하락하며 7위로 밀려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2016.1.21일) 발표에서도 이란은 동결 해외자산 해제와 원유수출 재개 등으로 에너지 플랜트와 인프라 발주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한국무역협회(2016.2.24일)는 자동차, 자동차부품, 일반기계 및 철강제품 등이 이란제재 해제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들 품목은 동남권지역의 주력 수출품목이라는 점에서 동남권지역의 대신흥국 수출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브라질, 러시아,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등 10대 신흥국 상당수는 원자재 수출비중이 높아 지난 1년반 동안 크게 하락한 원자재가격 반등 여부가 동남권지역의 대신흥국 수출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World Bank에 따르면 이들 6개국의 총수출에서 원자재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80%에 달하고 있다.

IMF(2016.2월)에서 원자재가격이 신흥국의 정부수입 및 경제성장률과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고 분석하면서 최근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자원수출국의 GDP성장률은 2012~14년에 비해 2015~17년중 1%p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한편 World Bank(2016.1월)에서는 원유, 철광석, 천연가스 등의 가격이 2016년 바닥을 찍고 2017년부터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참고문헌]

국제금융센터, 인도 모디노믹스 개혁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2015.4.1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폴란드의 주요산업-자동차, 인프라, 2013.12.31.

산업통상자원부, 안개걷힌 이란시장 진출방안 마련, 2016.1.21.

한국무역협회, 수출경쟁력 변화와 시사점, 2015.7.

_____, 우리 수출기업이 보는 이란시장 전망, 2016.2.24.

한국은행, 중국경제 성장정책 변화에 따른 우리 대중수출의 영향, 2012.9.19.

_____, 글로벌 위기 이후 주요국의 수출 동향과 변동요인 분석, 2013.11.26.

_____, 아시아 신흥국의 인프라 현황 및 수요 추정, 2015.8.12.

_____, 원자재수출국의 재정정책이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 2016.2.21.

Ahmadi-Esfahani, F.Z., Constant market shares analysis : use, limitations and prospects, 2006.

FINANCIAL TIMES, India is a light in a gloomy world economy, 2016.3.15.

IMF, Commodity Price Outlook & Risk, 2015.8.12.

IMF, Commodity exporters in the aftermath of the commodity boom(working paper), 2016.2.15.

Markit, Markit Economic Research, 2016.3.3.

The Korea Herald, Closing developing countries' capital drain, 2016.2.21.

World Bank, Commodities Price Forecast, 2016.1.20.

BNK경제인사이트 발간목록

2014

0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남권 수출의 변화와 시사점
06	부산지역 아파트 시장 동향과 전망
07	글로벌 해운시장 전망과 동남권 조선업의 과제
08	동남권지역의 고용구조 변화와 시사점
0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엔화환율 동향과 전망
10	동남권 지방은행의 그룹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11	2015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월드클래스 300기업의 특징과 지역기업에 대한 시사점

2015

01	G2경제 향방과 동남권 경제에 대한 시사점
02	최근 국제금융시장 진단과 시사점
03	동남권의 중남미 교류 현황과 과제
04	지역경제 혁신의 동력 – 사물인터넷
05	동남권 자동차산업 현황과 과제
06	동남권지역 서비스업 현황
07	최근 기업금융 현황
08	중국경제 전망과 동남권 경제에 대한 시사점
09	동남권지역 주택시장 현황
10	동남권 창업생태계와 발전과제
11	2016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경쟁력 우위 조선해양기자재업체의 특징

2016

01	중국경제에 대한 최근의 시각
02	회사채 시장 동향 분석
03	10대 신흥국(중국제외)에 대한 동남권지역 수출 분석



BNK BNK금융지주

발행인 : 성세환
편집인 : 조성제
발행처 : BNK금융지주(www.bnkfg.com)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문현동)
연락처 : BNK금융경영연구소
Tel : 051-620-3180 Fax : 051-620-3199
이메일 : research@bnkfg.com

BNK금융지주 홈페이지에서 BNK경제인사이트 뿐만 아니라
경제 및 금융분야의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